05

어떤 자세로 배울까?

With what attitudes should you learn?

이 장은 학습자가 배울 때의 태도 또는 마음의 상태이다. 전통 학문에서는 배움의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使此心無一點舊染之汚
사 차 심 무 일 점 구 염 지 오
然後可以論進學之工夫矣
연 후 가 이 논 진 학 지 공 부 의

◁격몽요결▷

이 마음에 옛날의 물든 더러움이 한 점도 없게 해야 배움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의할 수 있다.

Only when there is not a speck of dirt stained in the past in this mind can we discuss the study of going to learning.

*使: ~를 ~하게 하다
*無: 없다
*舊: 옛날, 오래
*汚: 더럽다
*可: ~할 수 있다
*論: 논하다, 말하다
*此心: 이 마음
*一點: 한 점
*染: 물들이다
*然後: ~한 뒤에야
*以: ~함으로써
*進學: 학문에 나아가다

해설

배움에 나아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 상태이다.

흔히 종교에 입문하려면 정화의식이 필요하다. 회개하든 또 무슨 의식을 하든지 과거의 습관에 젖었던 일이나 저질렀던 일들을 청산해야 그 종교에서 바라는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선생의 이 발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학문이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교나 가정에서 때마다 치르는 의식과 축하회도 이와 관련된다. 학생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學者 近思力行爲急務 至於天命
학 자 근 사 역 행 위 급 무 지 어 천 명
則非猝然可談者也
즉 비 졸 연 가 담 자 야

<논심성정(論心性情)>

배우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운 일을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는 일이 급한 일이지, 하늘의 명령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t is urgent for a learner to reflect on what is at hand and to work hard in practice,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suddenly said about something like a will of Heaven.

*學者: 배우는 사람
*思: 생각하다
*爲: ~이다
*至於: ~와 같은 것
*則: ~은
*猝然: 갑작스럽게, 불쑥
*談: 말하다
*近: 가깝다
*力行: 힘써 실천하다
*急務: 급한 일
*天命: 하늘의 명령 또는 뜻
*非: 아니다
*可: ~할 수 있다
*者: ~하는 것

해설

단계에 맞게 배우는 태도이다.

원문 근사(近思)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일상의 가까이 있는 도리부터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격몽요결』 서문에서 밝혔듯이 배움의 내용이란 평상시에 하는 일로서, 처음부터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곧 『논어』의 하학상달(下學上達)처럼 가까이 있는 작은 대상부터 배워 점차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처음부터 수준을 너무 높이 잡아 빠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수준별 학습과 통한다.

用功 不緩不急 死而後已
용 공 불 완 불 급 사 이 후 이

◁자경문▷

공부하는 일은 느려서도 빨라서도 안 되니 죽은 뒤에야 끝나기 때문이다.

The reason why I should not be slow or fast in my studies is because these things will only end after I die.

*用功: 노력하다, 힘쓰다
*緩: 느리다
*死: 죽다
*後: 뒤에
*不: ~아니하다
*急: 급하다
*而: 문장 접속의 어조사
*已: 말다, 그치다

해설

선생이 스스로 다짐하는 말로서, 공부에는 서두르거나 느리게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죽은 뒤에야 끝난다"라는 말은 『논어』 속의 "임무는 막중하고 길은 멀다"라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가져왔다.

입시 공부라면 서둘러서 선행학습까지 하고, 늘 하는 공부라면 느긋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선생은 둘 다 경계하였다.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길이기에 지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교육 관점에서 보면 학습 속도 조절이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의 발달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면 서두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다.

若求速其效 則此亦利心
약 구 속 기 효 즉 차 역 이 심

◁자경문▷

만약 배움의 효과를 빨리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기심이다.

If you find the effect of learning quickly, it is also from selfish mind.

*若~則~: 만약 ~하면 ~하다의 구문에 쓰임

*求: 구하다, 찾다

*速: 빠르다, 빨리

*其: 그(대명사)

*效: 효과

*此: 이, 이것

*亦: 또한

*利心: 이기심, 욕심

해설

선생이 스스로 다짐하는 말로서, 배움의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다.

흔히 학생들 가운데는 조금 배워서 무엇을 익히거나 알만하면 다 배웠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홍콩 무술영화에도 다 배웠다고 하산하여 사고 치는 젊은이도 그렇고, 예능을 배우다가 빨리 연예인이 되려고 어설프게 나왔다가 되레 배움도 망치는 일이 그런 일이다.

효과를 빨리 보려는 비유를 『맹자』에서 조장(助長)이라 말한 바 있다. 곧 어리석은 농부가 싹을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 잡아당긴 일이 그것이니, 딱하게도 싹은 다음 날 밭에 가 보니 다 말라 죽고 말았다.

所謂眞實心地 刻苦工夫 兩言盡之矣
소 위 진 실 심 지 각 고 공 부 양 언 진 지 의

◁격몽요결▷

이른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공부를 애써서 하라"라는 두 마디 말씀이 그 뜻을 다하였다.

The two words, "Be sincere in your heart and study hard" perfectly expressed his meaning.

*所謂: 이른바
*心地: 마음, 마음의 본바탕
*工夫: 공부
*言: 말씀
*之: 그(대명사)
*眞實: 진실(하다)
*刻苦: 몹시 애씀
*兩: 둘, 아울러
*盡: 다하다
*矣: 문장 끝에 붙는 어조사

해설

배움에서 마음과 공부의 자세를 말한 내용이다.

원래 맨 앞에 '黃勉齋라는 글이 붙어 있다. 그는 남송의 학자로 이름이 황간(黃幹)이고, 주희의 제자이다. '그 뜻'이란 앞 문장에 나온 공자의 주충신(主忠信)을 주희가 풀이한 내용이다.

"마음을 진실하게 한다"라는 말은 배움 또는 학습의 동기와 관련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배우는 일은 도둑이 그 기술을 배우는 일과 다름이 없다. 돈과 명성만을 위해 배우는 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동기는 아니다.

그리고 공부는 원래 힘써 하는 일이다. 힘쓰지 않으면 그 효과도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움의 태도에는 이 두 가지면 족하다고 하였다.

學者 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 亂其志
학 자 필 성 심 향 도 불 이 세 속 잡 사 난 기 지
然後爲學有基址
연 후 위 학 유 기 지

◁격몽요결▷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도리를 향하되, 세속의 잡된 일이 자기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한 뒤에야 학문함에 기초가 있게 된다.

A learner must have a sincere heart toward the Way, and only after making sure that worldly trifles do not confuse his will, that he will have a foundation for his studies.

*誠心: 성실한 마음
*道: 길, 도리
*雜事: 잡된 일
*其: 그(대명사)
*然後: ~한 뒤에야
*有: 가지다, 있다
*向: 향하다
*世俗: 세속
*亂: 어지럽히다, 혼란하다
*志: 뜻, 의지
*爲學: 학문을(에 종사)하다
*基址: 터, 기초

해설

배움에는 무엇보다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본문의 "도리를 향한다"라는 말은 성인이 되는 길을 향한다는 뜻이다. '성실한 마음'이란 '참된 마음'과 같은 말로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잡된 일을 생각한다면, 배움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학습 동기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멀리 보면 배움의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움의 동기가 자기의 세속적 욕망과 결탁하면, 배워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多言多慮 最害心術
다 언 다 려 최 해 심 술

◁격몽요결▷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이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데에 가장 해롭다.

Many words and many thoughts are most injurious to Art of the Mind.

*多: 많다 *言: 말
*慮: 생각, 염려 *最: 가장
*害: 해롭다
*心術: (도덕적) 마음씨,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해설

배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태도이다.

여기서 '생각'은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염려나 잡념 같은 것으로 배움에 방해되는 요인이다. 또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남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밑천도 드러난다. 그래서 예부터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언과 번민은 배움의 보편적 방해 요소로서 불교의 수행에서도 금한다. 원문 '심술'(心術)은 요즘 부정적으로 쓰이는 심술보와 같은 뜻이 아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술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습자의 주의집중이다. 잡담과 잡념을 없애고 오로지 학습에 몰두하는 일이다.

爲學者 一味向道 不可爲外物所勝
위 학 자 일 미 향 도 불 가 위 외 물 소 승
外物之不正者 當一切不留於心
외 물 지 부 정 자 당 일 절 불 류 어 심

◁격몽요결▷

학문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도를 향하여 외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바르지 않은 외물에는 일절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Those who study should always turn toward the Way and not be distracted by external things. Anything that isn't right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all.

*爲學: 학문을 하다
*一味: 한결같이, 곧장
*不可: ~하면 안 된다
*外物: 바깥 사물
*不正: 바르지 않음
*一切: 일절, 절대로
*於: ~에
*者: 사람, ~것
*向: 향하다
*爲~所~: ~에게 ~을 당하다
*勝: 이김, 이기다
*當: 마땅히 ~해야 한다
*留: 남겨두다, 머무르다
*心: 마음

해설

배우는 사람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를 요구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공부보다는 연예인, 운동선수, 이성 친구, 게임에 빠지거나 때로는 술 담배와 폭력 따위에 유혹되어 탈선하기도 한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훗날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배움에만 매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배움에 집중하는 태도가 좋다.

이 가르침을 역으로 따지면 학습 동기를 강화하거나 흥미를 유발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일이다.

當正身心表裏如一 處幽如顯 處獨如衆
당 정 신 심 표 리 여 일 처 유 여 현 처 독 여 중

◁격몽요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겉과 속이 같게 해야 하니, 깊숙한 곳에 있더라도 드러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혼자 있더라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You have to get your body and mind right and make your appearance and your heart the same, so even if you are in a deep place, act as if you are in an open place, and even if you are alone, act as if you are in a group.

*當: 마땅히 ~해야 한다
*身心: 몸과 마음
*如一: 하나같이
*幽: 그윽하다, 깊다
*顯: 드러나다
*衆: 무리, 여럿
*正: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表裏: 겉과 속
*處: ~에 있다, ~에 처하다
*如: ~처럼, ~같이
*獨: 혼자

해설

겉과 속이 일치된 태도를 요구하였다.

'깊숙한 곳' 이하의 말은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것이다. 그 獨 자의 뜻을 주희는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만 아는 곳'이라고 풀어, 쉽게 말해 자기의 외면은 물론 자기 내면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철저함을 말한다. 『중용』의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계신공구(戒愼恐懼)가 그런 뜻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하지만, 유학은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육적으로는 마음과 행동의 정직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常以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상 이 행 일 불 의 살 일 불 고 이 득 천 하
不爲底意思 存諸胸中
불 위 저 의 사 존 저 흉 중

◁격몽요결▷

한 가지라도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항상 가슴속에 두고 있어야 한다.

Even if it is possible to gain the world by doing even one unrighteous thing or by killing even one innocent person, you must always keep the intention in your heart that you will not do it.

*殺: 죽이다
*得: 얻다
*不爲: ~하지 않는다
*意思: 의사, 생각
*諸(저): ~에
*辜: 허물
*天下: 천하, 세상
*底: ~의
*存: 간직하다, 보존하다
*胸中: 가슴속

해설

배움에서 의롭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불순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거나 보람 있는 삶은 아닐 것이다.

교육은 행위에 앞서 선한 동기를 가지며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성적 지상주의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풍조에서는 약삭빠르거나 간교한 인물만 나올 것이다.

持敬 是窮理之本 未知者 非敬無以知
지 경 시 궁 리 지 본 미 지 자 비 경 무 이 지

◁성학집요▷

경을 간직함은 이치 탐구의 근본이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

Preservation of earnestness is the basis of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those who do not yet know have no way to know unless earnestness.

*持: 간직하다 *敬: 경
*是: ~이다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本: 근본 *未: 아직 ~아니다
*知: 알다 *者: 사람
*非: 아니다 *無: 없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경(敬)이 학문 탐구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경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마음을 잡도리하여 집중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본문의 말은 주희의 말이다. 그 말에 앞서 선생은 "경이란 성인이 되는 학문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였는데, 학문하는 일의 중요한 마음 자세를 경이라 하였다. 배움의 과정에 필요한 태도이다.

교육상의 방법은 학습자가 잡념을 갖지 않고 배움에만 전념케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동기유발의 기법과 활동이 필요하다.